

## 이용객 반토막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없나

3월 여수공항 운항 항공편 수·이용객수, 작년의 절반  
 제주항공에 이어 플라이강원도 철수, 대책마련 시급

전남 동부권과 남해안의 관문인 ‘여수공항’의 항공 편수와 이용객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항공에 이어 최근 플라이강원이 여수공항에서 철수하면서 여수공항 이용객도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여수공항은 지난 2년간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여객을 유치해 지역민과 광양만권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으며, 남해안 남중권 중심 공항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

하지만 코로나 엔데믹으로 국내선 수요가 위축돼 3월 말 여수공항 운항 항공편 수와 이용객 수는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실제 지난해 열린 여·순·광 행정협의회에서 순천·광양시와 항공사의 운항 손실 재정지원을 기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에 여수공항의 취항노선 증편을 건의했으며, 전라남도에도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 등 공항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여수공항 취항 항공사의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한 각종 관광 호재로 광양만권 방문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항공교통만의 편익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강종만 영광군수(오른쪽)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 영광 어르신들은 점심시간 여기 간다...무료급식 호응

무료급식소 5곳 운영...노인 50명 배달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영광군 어르신들이 점심 거를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자체가 결식우려가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 사업을 펼치면서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4월부터 영광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광군이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총 5곳에서 진행 중이다.

여기에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50명에게 공모사업 선정업체 3곳을 통해 점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해주고 있다. 점심식사는 한 끼에 5500원이며 배달은 주 5일을 기준으로 연간 250일간 이뤄진다. 예산은 전남도비와 영광군비로 조달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혼자 식사하다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니 밥맛이 나고 즐거워서 살맛이 난다”며 영광군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중인 강종만 영광군수도 틈틈이 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연세가 드실수록 끼니를 잘 챙겨 드셔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식당 관리에 더욱 신경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관은 무료회원제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 “학생 대상 마약범죄 주의”...광주시교육청, 예방교육 강화

광주시교육청이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해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대상 마약류 범죄 사건 대비와 유해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학교 마약 예방교육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약사회,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마약 예방 교육 TF팀을 구성했다.

또 12일에는 이정선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이 마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마약 범죄 피해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학교 위클래스·교육지원청 내 위(Wee)센터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학교별 담당자와 일반 교원의 마약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약류 예방 교육은 초·중·고·특수학교 85개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최근 서울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음 행사를 가장해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던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도 유사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교 내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등과 협력해 학원가 중심으로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재환기자

### 누리호, 내달 24일 3차 발사 탑재 위성 8기 최종 시험 중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번째 발사가 오는 5월24일 진행된다. 정부는 실제 발사에 앞서 이달 말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시행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상황을 종합 검토해 5월24일을 발사 예정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관리위에서는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은 5월25일~5월31일로 설정됐다. 발사 예정시간은 저녁 6시24분(±30분)으로 확정됐다.

발사관리위에서 발사 준비 과정을 점검한 결과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탑재 위성은 5월1일~2일 사이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될 예정이다.

최이슬기자



세월호 9주기 앞둔 팽목항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 방파제에서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기다리며 설치됐던 노란리본과 조형물을 보며 추모하고 있다.

건강한 밥상의 시작

##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